

다문화 사회와 한국 교회



전 세계가 다문화 현상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다문화 현상은 근래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도 다문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초대교회도 다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다문화 상황에 탁월하게 적응한 문화지수가 높은 지도자로 여기기도 한다. 예수님은 적어도 3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던 것으

로 보인다.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한 히브리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민/이주를 통한 다문화 현상의 효시는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낯선 타국 땅으로 이민을 떠나야 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자녀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민생활

을 하면서 차별과 억압도 경험했다.

세계 속 다문화

다문화 사회와 거리가 멀어 보이던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피살된 사건도 근본적으로 상호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쪽에서는 타문화권 이주민들의 유입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태도를 지적한다. 2016년 5월말 현재 외국 국적 입국자들의 숫자는 전년 대비 7%나 증가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외국인과의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문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주민들의 숫자만 증가한다고 자연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국은 가족 이민의 길이 매우 좁다.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것만큼 잔인한 이민 정책은 없다. 그들은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심지어 불법도 불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잠재적인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사무엘 헌팅턴 교수의 '문명의 충돌론'은 처음에는 하나의 가설로 치부되었지만,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끔찍한 현실임이 드러났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헌팅턴 교수의 이론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던 한국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와 문명이 충돌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그 문제로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이를테면 이슬람 포비아로 인한 반 이슬람 정서의 확산이 그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안에 이슬람 출신 이주민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9.11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테러였지만, 유럽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테러가 발생해 왔기

에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테러 대부분은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8월 2일, 극우세력 2명이 이탈리아 북부 도시 볼로냐역 대합실에서 폭탄 테러를 벌여 8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1989년 6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쇼핑센터에서도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를 감행해 2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1998년 8월 15일에는 영국 북아일랜드 오모시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던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연계조직이 폭탄 테러를 벌여 29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당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4년 3월 11일에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 아토차역에서 스페인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반발하여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동시다발적인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 이날의 테러로 191명이 숨지고 2천 명이 다쳤다. 유럽 최악의 테러로 기록되는 스페인 테러가 발생하고 이듬해인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이 자살 폭탄 테러를 벌여 56명이 죽고 700명이 다쳤다. 2011년 7월 22일에는 노르웨이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69명이 사망했다. 스스로를 '민족주의의 전사'라고 주장하는 광신적 극우주의자 아네르스 브레이비크가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 청사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킨 후, 오슬로 우퇴야 섬의 집권 노동당 청소년 캠프장으로 가서 총기를 난사했다.

2015년 1월 7~9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쿠아치 형제 등 3명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은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사무실

물리적 테러이든 정치·경제적 테러이든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중심에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감추어져 있다. 다문화 사회 속 사회·문화적 충돌은 이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뿌리에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에 총기를 난사하고 연쇄 테러를 자행하여 총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5년 11월 13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로 사망 129명, 부상 70여 명 등 유럽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1년 전인 2004년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와 더불어 최악의 테러였다. 가장 최근인 2016년 3월 22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테러로 사망 34명, 부상 150명 이상이 발생했다.

물리적 테러이든 정치·경제적 테러이든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중심에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감추어져 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회·문화적 충돌은 이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뿌리에는 거의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아랍과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부터 애굽으로의 이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이민 길에 올랐다. 타향살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말이다.

다문화, 복합문화, 이민문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혹은 '복합 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인데, 다음 해인 2007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를 웃돌았다고 한다. 한때 단일 민족의 자

부심을 가졌던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던 한국 사회에 등장한 다문화 현상은 마치 '나무로 만든 쇠'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국가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배워 왔고, 또한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구촌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시점에서 단일 민족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민족성을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오히려 스스로를 어렵게 만든 경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뉴욕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제인 버뱅크 박사는 독일 나치의 치명적인 실패는 단일 민족국가 형성을 꿈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문화와 융합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일에 인색했다. 그 결과 비슷한 면이 많은 영국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뒤처지게 되었다. 영국과 일본은 둘 다 섬나라이다. 크기도 비슷하고 비록 표면적이지만 왕권 정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민자들에게 불관용적이었던 반면, 영국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외국인 이민자들을 유치하여 뛰어난 인재들을 정치/경제 각 분야에 영입할 수 있었다.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예일대학교의 폴 케네디 교수는 이 점을 들어 "이민에 반대하는 집단은 어리석다"고 일갈한다. 오히려 미래 강대국의 조건은 다양성과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국가, 즉 이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한다. 또한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이며 <소프트 파워>의 저자인 조지프 나이 교수는 비록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제국적 전통과 타문화에 대한 불관용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강대국의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나라든 초기에는 이민자들을 환영한다. 필요한 노동력을 대신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민 숫자의 점차적인 증가는 원주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이민자들은 애굽에서 환영받았다. 심지어 이민자 출신인 요셉은 엄청난 대기근에 애굽뿐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도 먹여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이민 문호를 개방하여 히브리 민족의 이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한다. 점점 늘어가는 히브리 이민자들의 숫자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결국 하나님은 억압하던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민자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키셨다.

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억압받던 이민자들이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테러로 표현한다면, 보수자들은 정책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민 국가인 미국도 9.11 사태 이후 다른 문화와 융합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즉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을 더 강화하겠다는 반반도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근본주의 성향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단체들도 프랑스와 유럽에서 빈번하게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다문화 정책을 중단하고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물론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 다문화 정책의 적폐가 누적되어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나 동화주의 이민정책의 한계



등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다시 인종적 특성으로 국가를 규정하던 옛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브룩스 피터슨(Brooks Peterson)의 말처럼 “돌진하는 코끼리를 깃털 하나로 멈추게 하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다문화 사회화 추세를 거슬러 인종적 특성만을 가지고 국가를 규정하려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은 사실 문화적, 인종적 요인보다 경제/재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 원래 문화 교류의 시작도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기인한다. 만일 문화적 가치의 차이 때문에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면, 우리와 유교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권에서 오는 이주민들보다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이주민들과 더 큰 갈등을 겪어야 하는데,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민 현상에 있어 우리보다 앞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이민자들의 유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들과 관련된 이민 정책, 즉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럽 내 인종, 종교 갈등의 뿌리에는 조화와 관용이 아니라 자문화 우월적인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키워드는 관용과 조화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을 품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다문화 상황 혹은 복합 문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용과 조화를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요셉과 같은 인물, 즉 다문화 시대를 이끌어 갈 인물을 키워 내야 한다. 또 타문화권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 사회로 편입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선 교회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없애는 반편견 교육 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 편견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라는 용어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이화여자 대학교 장한업 교수는 다문화라는 표현이 우리가 단일 문화를 가진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문화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라고 한다.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라는 표현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다소 많이 내포되어 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같은 외국인 이주민이라도 서구에서 온 사람들은 ‘글로벌’ 혹은 ‘국제적’이라 여기면서 우리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문화’라 부르며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 내 외국인을 위한 예배도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예배는 ‘글로벌 워십’ 혹은 “국제 예배”라고 하면서 그 밖의 언어를 사용하는 예배는 “다문화 예배”라

고 부르며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짙다. 초대교회는 사실 ‘다문화’ 교회였다. 문화 간의 가치 충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의 구제 문제로 초대 교회에서 최초의 갈등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는 사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보다 ‘이민 가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민 교회 혹은 다민족 교회라고 부르지 다문화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다문화라는 개념에는 단일 문화가 우월하다거나 주된 문화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뿐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이해와 세계 시민 의식을 교육하여 상호문화 교육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한업 교수는 “문화 교육의 목적은 다른 문화를 가르쳐서 그런 문화를 수용하거나 관용하도록 하는 데 있고, 상호문화 교육은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 상이한 문화집단 간에 서로 이해, 존중, 대화하게 하는 지속적인 방법을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교육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초대 교회는 원래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教會)였다.

셋째, 교회는 종교적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특히 타문화권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이주민들을 위한 사권의 공동체, 즉 **交會**여야 한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이국 땅에서 종교는 영적인 기능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된다. 110년의 한인 이민 역사를 살펴봐도 이민사회에 교회가 끼친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다.

다문화 사회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교회는
사회통합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이주해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그러한 센터가 필요한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이주민 사역을 선교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로 선교적 공동체인 橋會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흔히 선교는 해외에 가는 것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보내 주신 선교지이다. 목회자 아들이었던 내가 한창 방황하던 대학생 시절 내게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복음을 전해 준 자매가 있었다. 나중에 그 자매에게 왜 하필 나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 자매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선다. 어바나 선교대회에서 선교적 열정을 갖게 되었는데, 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선교단체의 리더에게 상의했더니 '선교지에 갈 수 없다면, 네 주변에 있는 선교지를 찾으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 같은 캠퍼스 내 '유학생'을 찾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다. 하지만 지극히 제한된 숫자의 선교사들만 이슬람권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 여권으로는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자유롭게 여행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갈 수 없는 국가들에서 왔다. 이렇게 좋은 선교의 기회가 또 있을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선교

지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적대시하면서 먼 곳에 있는 선교지에 사랑을 전하러 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이슬람 포비아 현상은 상당히 염려스럽다.

다문화 사회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회는 사회통합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유럽은 다문화 정책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다문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화 과정에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연구, 조사하여, 그 필요를 채우고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배타적 입장을 지양하고, 오히려 대립과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들을 위해 교회의 문턱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이 땅에 이민자로 오신 아기 예수가 갈 곳 없어 구유에 놓였던 것처럼, 갈 곳 없는 이민자들을 교회마저도 몰아낸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향해 문을 굳게 닫는다면,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2016.7.16일자 발행)



글 | 전병철

삶 자체가 다문화적인 이민자의 삶이다. 한국에서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콜로라도대학교(볼더)에서 심리학과 중국학을, 풀러신학대학원에서 가족생활교육을 공부한 후 귀국하여 육군에서 사병으로 병역을 마치고, 한동대학교에서 강의전담교수로 잠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도미하여 바이올라대학교에서 다문화성인교육과 리더십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5세 청년사역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 또감사선교교회 등 여러 이민교회를 섬기며, 동시에 바이올라대학교, 조지포क्स신학대학원의 레너드 스윗박사가 이끄는 미래교회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논문지도교수로 목회와 교수 사역을 병행하다가, 2012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로 옮겨서 가르치고 있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상담학과 학과장으로 수고하며, 교육대학원에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해 주임교수로 섬기고 있다.